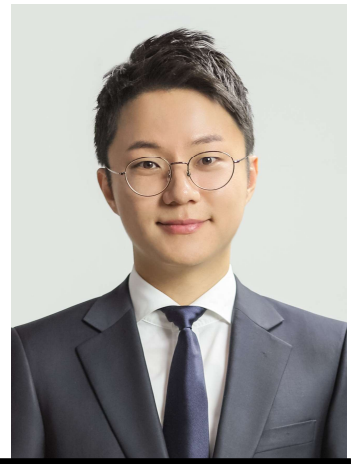


제57회 제2차 변리사 시험 대비 디자인보호법 실전G/S

이준권 변리사

제56회 변리사 시험 합격

jungonna20@gmail.com



디자인보호법 시험 개요

연도	응시인원	FAIL 비율
2019년 (P/F)	356명	48%
2018년 (P/F)	332명	46.7%
2013년~2017년	133명(평균)	-

(1) 디자인보호법 응시자 수 증가

선택과목이 P/F제도로 바뀐 뒤 디자인보호법 응시자는 대략 2.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많은 선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시험의 난이도와 FAIL 비율

선택과목이 P/F제도로 바뀐 2018년, 2019년 모두 시험의 난이도는 '쉬움'이었습니다. 이는 **선택과목으로 인해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FAIL 비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FAIL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출제 경향

디자인보호법 2차시험의 출제 유형은 '판례, 심사기준, 사례, 단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이 P/F제도로 바뀐 2018년에는 다수의 판례문제가 출제되었으나, 2019년에는 사례, 단문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에 대한 균형 잡힌 연습과 대비가 요구**됩니다.

강의내용

(1) 디자인보호법 1회독

디자인보호법의 중요 논점에 대한 답안 작성 연습을 목적으로 하되, **GS에 출제되지 않은 논점에 대하여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논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디자인보호법 전반에 걸쳐 1회독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2) 판례 및 심사기준 정리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 판례 및 심사기준을 정리하여, 다른 추가자료 없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GS문제

'판례, 심사기준, 단문, 사례' 4가지 유형 모두에 관하여 답안 작성해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채점 및 멘토링

GS는 직접 꼼꼼하게 **채점할 것을 약속**드리고,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타 과목 및 수험 전반에 걸쳐 **멘토링을 횡수에 제한 없이 제공**하여 수험생활을 다방면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의대상

본 강의는, ① 디자인보호법에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정리된 자료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 ② 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디자인보호법에 강제성을 가지고 암기 및 1회 독하고 싶으신 분, ③ 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도표

1회, 2회	디자인보호법 목적, 성립요건, 물품성, 캐릭터, 완성품과 부품, 부분디자인, 글자체디자인, 형태성, 형상만의 디자인, 동적디자인, 화상디자인, 문자의 취급, 색채의 취급, 시각성, 심미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3회, 4회	디자인의 동일·유사,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부등록사유, 관련디자인, 1디자인1출원, 일부심사등록제도, 복수디자인, 한 별 물품디자인, 식품디자인, 출원의 효과, 출원서 기재사항, 출원의 취하·포기, 도면의 법적취급, 보정, 요지변경
5회, 6회	신규성상실예외, 비밀디자인, 분할출원, 출원일 인정, 조약우선권주장, 보상금 청구권, 출원공개, 정보제공, 설정등록, 디자인권의 효력, 효력제한, 보호범위, 이용·저촉, 침해와 구제수단, 디자인권의 이전, 공유, 선출원에 의한 통상 실시권, 중용권, 심판, 소송, 이의신청, 헤이그 국제출원
7회, 8회	전범위

디자인보호법 공부방법

(1) 단문 암기

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단문 암기라고 생각됩니다. 2차 기본서에 있는 단문 암기만 잘되어 있으면 공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어렵지 않게 PASS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문 암기 팁 : ① 스터디 활용, ② 조문과 연계하여 암기, ③ 특허·상표와 연계하여 암기, ④ gs 활용, ⑤ 어플/목차집 활용)

ex. 조문과 연계하여 암기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法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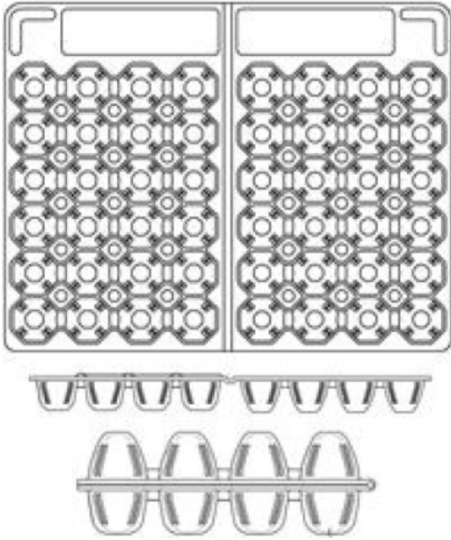
- I. 의의, 취지
- II. 요건 (주/객/시) 68①
- III. 절차 68②③④, 69, 75
- IV. 심사 70, 71, 72, 73②
- V. 결정 73, 74
- VI. 효과

ex. 특허·상표와 연계하여 암기

출원의 취하·포기, 보상금청구권, 출원공개, 정보제공, 디자인권의 효력·효력제한, 디자인권의 이전·공유,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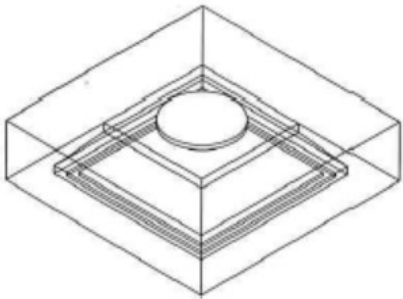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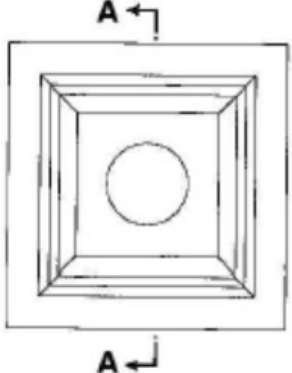
(2) 판례

타 법과목의 판례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시된 주요 대법원 판례는 모두 눈에 익혀 놓아야 하며, 판례를 보는 순서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주요 논점 및 결론 암기**, ② **세부 논점 파악**, ③ **判例 문구 암기**

ex. 55회 기출 (2013후2613, 2012후3794) 	I. 주요 논점 및 결론 (0) 무효심판 (1) 창작성 위반 : 적극 (2) 신규성 위반 : 소극 (비유사) II. 세부 논점 (1) 창작성 : 공지형태·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 (2) 신규성 : 기본작기능능적 형태, 옛날부터 흔히 사용, 단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III. 判例 문구 (1) 차이점(난좌 몸체 형상, 난좌 바깥면 형상, 손잡이부 형상) but 치환, 결합, 변형 (2) 공통점(덮개부, 받침부, 긴 홈, 배열, 손잡이부, 라벨부착부) but 차이점有
--	--

(3) 심사기준

심사기준의 내용은 시중의 2차 기본서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시 위주(ex. 도면, 사진)로 해당 논점 및 결론을 암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 52회 기출 	
[주요 논점] 시각성 [결론]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은 시각성 없음. 다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사례 대비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례문제는 한정적이고, 타 과목에 비해 내용도 복잡하지 않은 편이지만, 한번도 접해보지 않고 시험장에 간다면 당황스럽고 실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몇번만 직접 풀어보고 연습해보는다면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대비는 기출문제 또는 gs문제로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 쓰기 연습

gs수업에서 실제 정해진 시간에 써보는 연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법과목을 공부하면서 쓰기 연습을 하다 보면, 디자인보호법의 쓰기 실력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디자인보호법 선택자의 한가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